

10-25-2015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17:1-15

본문: 고린도후서 5:1-13

제목: 우리는 무엇에 미쳐(beside ourselves) 사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Besides ourselves)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후 5:13)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증거했을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는 더 이상 미쳐날뛰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칠만큼 그분께서 주신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더 이상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1,2,6)

그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특별히 에녹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Translated),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히 11:5)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미 오래 전에 에녹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고 므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은 삼백육십오 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음이라."(창 5:21-24) "므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앞으로 큰 어떤 것이 온다는 뜻으로서 이는 노아 때에 온 세상에 임할 홍수 심판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신 것은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심판인 대환란 전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옮기시는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의인 롯을 소돔성 밖으로 옮기신 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이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신의 교회를 심판받을 세상에 내버리지 않고 환란 직전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늘로 옮기실(Translate)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소망에 대하여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은 마치 진흙으로 지어진 집처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에 맥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조만간 우리 모두가 이 집을 벗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옮기실 때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소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늘로 옮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그는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입혀지지고자

합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고후 5:4-7)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성도들과 살아서 휴거되기 위하여 변화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주 안에서 죽은 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성도)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 11:25,26) 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마르다는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요 11:27) 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을 때 그녀의 믿음을 버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요 11:39) 이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마침내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의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악취가 난 것처럼 실상은 우리 몸도 점점 늙어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인해 자신에 차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보증"(The earnest of the Spirit)이라 말함으로써 성령이 마치 앞으로 지어질 집을 사기 위하여 이미 지불되어진 보증금 내지 청약금(**Earnest money**)과 같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차라리 몸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빨리 죽어서 하늘로 가고 싶다는 그의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고전 10:33).

이렇게 언제든지 몸을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진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써야 하는 일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구원받아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쁨시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빌 2:12,13)

옛날 다윗 왕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써 그가 가진 유일한 소망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께 올인(**All-in**)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25-2015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7:1-15

Main scripture: 2 Corinthians 5:1-13

Subject: What are we beside ourselves to?

Apostle Paul spoke unto the saints of Corinthians church saying, "**For whether we be beside ourselves, it is to God: or whether we be sober, it is for your cause.**"(2Cor. 5:13)

Then, why Apostle Paul testified, he is beside to God? We'd better meditate why he was beside himself to God. Before he saw Jesus Christ, he had been beside to killing the children of God. But now he is beside himself to God, but he is no more beside himself to murdering the children of God, he became to sober for them, and rather he ministered them.

Of the reason why he had been changed was because of the faith in the hope given by God as much as he was to be beside himself to God. He became to look forward the hope in the kingdom of God, no more in the visible world. He wrote a letter unto Hebrews saying,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or by it the elders obtained a good report.

.....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th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Heb. 11:1,2,6)

When we testified of men of faith, he used Enoch as an sample of them. Enoch is the sample of the Christian that shall be translated without seeing death, when the Lord Jesus Christ appear in the air to take his bride, that is his church home in heaven:

"By faith Enoch was translated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ranslated him: for before his translatio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Heb. 11:5)

The man of God, Moses testified of Enoch long time ago saying:

**"And Enoch lived sixty and five years, and begat Methuselah:
And Enoch walked with God after he begat Methuselah three hundred years, and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all the days of Enoch were three hundred sixty and five years: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Gen. 5:21-24)

The name "Methuselah" means that something great to come in the future; it was related to the great flood in the day of Noah. Enoch was translated after he begat Methuselah, and walked with God for three hundred years before the flood came to the earth. This is a shadow of the church of God to be translated to heaven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to come to the earth. As another example, the LORD God sent his angels to take out Lot right before he judged Sodom with fire. Therefore, God will translate his church, the body of Christ not abandoning in the world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hope before us with joy. The earthly house of this tabernacle shall be falling down when we give up our breath as the hose that is made of dust. He testifies, our flesh is the house of our soul; and we are going to put of sooner or later. He testifies, our Lord Jesus Christ will translate to our eternal house in heavens when he appear in the air in near future.

At that time, Apostle Paul and his brother and sisters in the Lord must have believed that the Lord Jesus was going to appear to take them home when they were alive. They must have been able to overcome all kinds of afflictions through the substance from their faith of what they hoped for.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ir faith in the main passage:

"For we that are in this tabernacle do groan, being burdened: not for that we would be unclothed, but clothed upon, that mortality might be swallowed up of life.

Now he that hath wrought us for the selfsame thing is God, who also hath given unto us the earnest of the Spirit.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knowing that, whilst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2Cor. 5:4-7)

When Jesus spoke before he raised Lazarus from death; he implied of two kinds of resurrection of Christian; someone after they die, the other ones before they die being alive. Jesus asked Martha after he spoke un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whosoever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Believest thou this?"(John 11:25,26)

Martha answered Jesus saying, **"Yea, Lord: I believe that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God, which should come into the world."**(John 11:27)

But afterwards, when she went the grave of Lazarus, she spoke unto the Lord forsaking her faith:

"Lord, by this time he stinketh: for he hath been dead four days."(John 11:39)

Then Jesus spoke unto her again saying, **"Said I not unto thee, that, if thou wouldst believe, thou shouldst see the glory of God?"(John 11:40)**

Finally,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Then, he that was dea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grave clothes; and he his face was bound about with a napkin.

Even now, Lord Jesus is asking us, **"Believest thou this?"**

As the body of Lazarus stinks, even our body is also getting old being corrupted gradually smelling stink. Therefore, Lord Jesus is still speaking unto us, **"If thou wouldst believe, thou shouldst see the glory of God?"**

Apostle Paul was always confident because of the Holy Ghost within him. He testified of the Holy Ghost as the earnest of the Spirit. In other word, he testified of the Holy Ghost as a earnest money or deposit to buy house before the house is built. This is the reason why he was willing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to be in the house in heaven. In other word, he wanted to die to go to heaven. But he was looking for the benefit for others, not seeking his to have others to be saved (1Cor. 10:33)

He encouraged the saints that have faith to live with the Lord in heaven to please God during the life in the earth, for they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very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his body, according to that he hath done, whether it be good or bad. This is the reason why the children of God fear the Lord in the hope of translation to heaven. He encouraged unto the saints of Philippians saying,

"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Phil. 2:12,13)

King David also confessed of the hope of resurrection by faith:

"As for me, I will behold thy face in righteousness: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Ps. 17:15)

Yeah! When Apostle Paul confessed saying, **For whether we beside ourselves, it is to God."**; he encourages us to have our life in the earth to be all-in to God before we see the Lord Jesus Christ. **Amen! Hallelujah!**